

100년 전 그라운드 함성, 오늘의 이야기 되다

송재영 작가·정배영 만화가 '볼셋! 국용' 출간



100년 전 광주고보 야구사건을 모티브로 한 출판만화 '볼셋! 국용'이 출간됐다. 스토리콘텐츠 기업 스토리빌런의 송재영 작가와 만화가 정배영이 선보인 이번 작품은 일제강점기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항일의식이 고조되던 시기 실제 야구 경기를 소재로 삼아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을 잇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1924년 광주고보 야구사건 모티브로
역사와 성장 서사 엮어 세대 공감 선사



선동열·이종범·서재응·김병현 등을 배출한 야구 명문 광주일고의 전신인 광주고보에서는 1924년 일본인 야구단 스타팀과 경기가 열렸다. 친선경기 형식이었지만 식민지 현실 속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 승부였다. 광주고보는 1대0 승리를 거뒀고 경기장에는 마치 광복을 맞은 듯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후 학생들이 옥고를 치르고 맹휴를 벌이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으며, 이는 훗날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배경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볼셋! 국용'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인물이 100년 전 야구장으로 소환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한때 야구 천재로 불렸지만 현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주인공은 정체불명의 혼령과 함께 광주고보 야구팀을 돕게 된다. 주인공은 역사적 사건의 한 가운데에서 자신이 있고 지냈던 열정과 진심을 다시 마주하고, 망했다고 생각했던 인생에 새로운 좌표를 찍어 나간다. 작품은 상실과 회복, 용기와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며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작품 속 광주고보 야구부 주장 '한해성'은 광주학생운동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장재성을 모티브로 했다. 항일운동에 참여하고 옥고를 치른 인물의 삶을 바탕으로 역사적 인물의 정신을 이야기 속 캐릭터로 재구성했다. 야구공에 깃든 혼령 '구신'도 작품의 주요 캐릭터다. 검은 고양이 이미지를 결합해 친근하게 구현했으며, 어린 독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송 작가는 '타라재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사라진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로 복원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에 정착한 지 5년째인 그는 "광주는 나를 작가로 만들어준 도시"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야구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다. '볼셋! 국용'은 2022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선정작 '붉은공'을 바탕으로 발전한 작품이다. 2024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획 창작스튜디오 웹툰 부문에 선정됐으며, 2025년 틱톡북 크라우드펀딩에서는 목표 대비 114%를 달성하며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송 작가는 광주매일신문 웹툰 연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지역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명진 기자

새로운 책



▲나에게로 가는 길=우동식 저자
2026 여수세계삼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섬의 존재와 가치를 문학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시집이 나와 눈길을 끈다. 우 시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여수 앞바다 유인섬 45개를 두 발로 걸으며 쓴 시 70편을 총 4부에 걸쳐 담았다. 섬의 풍광은 물론 섬 주민들의 언어를 활용해 그들의 삶을 생생하게 형상화했다. 특히 사라져가는 섬 공동체의 기억과 문화를 인문학적으로 되살려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시집은 섬의 가치와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재조명하며 여수 섬을 이해하고 알리는 문화 콘텐츠이자 인문학적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학동네·1만4천원



▲감정 수업=마크 브레이크 지음, 정지현 옮김
이 책에서 브레이크 교수는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대신 감정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법을 알려준다. 인간은 매일 끊임없이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정을 의식적이고 전략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행히 감정 조절은 누구나 배우고 연습하며 다듬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책은 감정을 삶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법을 알려준다. 감정 소모에 지친 독자들에게 삶을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게끔 마음을 길러줄 것이다. /비즈니스북스·2만1천원



▲우리는 한때 같은 성에 살았고=김희재 저자
폭력과 기억, 침묵과 망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네 개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연작소설이다. '성(城)'이라는 은유를 통해 기억의 구조를 형상화했는데, 이곳은 보호를 받는 안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결코 빠져나오기 힘든 감옥이기도 하다. 주인공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이 '성'에 머물러 있다. 자칫 과거에 무너지고 상처에 매몰된 여자들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소설은 그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낸, 일종의 생존을 다루는 작품이다. /다산책방·1만8천원



▲빨래탕=민지는 저자
애착 인형들은 손때가 가득 묻어 금세 꼬질꼬질해진다. 때로는 함께 놀다 실수로 큰 얼룩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면 인형들은 종종걸음으로 빨래탕으로 향한다. 저마다 탕 안에 자리를 잡고 문을 닫으면, 빨래탕이 함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적시고, 뽕실뽕실 하얗고 커다란 거품도 만들어 본다. 투정을 부리던 아기 판다도 어느새 신나게 목욕을 즐긴다. 아무리 씻어도 얼룩이 남는 얼룩소부터 목욕을 시키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아빠 판다와 아기 판다까지. 다채로운 인형들의 맛깔나는 대사를 보는 유쾌함도 가득하다. /위즈덤하우스·1만7천원

AI 시대, 인간다움의 본질을 다시 묻다

정용화 GIST 대외부총장 '라스트 휴먼' 출간

"AI 시대, 인간은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 존재의 영역까지 흔들기 시작한 시대, 인간다움의 의미를 다시 묻는 책이 나왔다. 정용화 GIST 대외부총장이 펴낸 '라스트 휴먼'이다.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미래 문명의 방향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자는 AI를 기술윤리나 노동 대체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 진화와 문명 전환의 차원에서 바라본다.



생성형 AI, 디지털 통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자본주의의 한계, 기후위기 등을 하나의 문명 비판틀 안에서 조망하며 기술 자체보다 인간 이해의 협소함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책은 인간을 경쟁적·도구적 존재로 바라보는 기존 관점을 넘어 관계적 존재론과 상호의존의 윤리, 지성·감성·영성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특히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를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에서 '호모 스피리투스(Homo Spiritus)'로의 전환으로 설명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인간이 아니라 더 깊은 인간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AI 시대 인간에게 남는 마지막 고유성을 영성과 내면의 성숙에서 찾는다. 기술 발전만으로 인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는 능력의 확장이 아닌 존재 방식의 변화에 있다고 말한다. 공감과 상생의 문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책 전반에 녹여 있다. 또한 멋진 신세계를 소환해 기술 문명이 인간 삶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살핀다. 인간을 규격화한 존재로

폰자했던 작품의 문제의식이 오늘날 AI·생명공학 시대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 혁명이 아닌 인간 내면의 '자기 혁명'이라고 언급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인류 진화와 기술 발전, 미래 상상력을 다루고, 2부에서는 AI가 인간 존재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부에서는 현대 문명의 문제를 경제적 인간과 도구적 이성 중심의 인간관에서 찾고, 4부에서는 관계적 존재론과 '정다운 사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제안한다. 정용화 부총장은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에 있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 내면의 성숙과 관계의 회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p>지방 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